

치 사

만물은 소생하고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봉축하는 뜻깊은 시기에 종덕, 현덕 법계를 품수하는 스님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찬탄합니다. 모든 불자들은 축하와 격려의 마음으로 발심출가 뒤 불퇴전의 원력을 이룬 품수자 여러분을 환희로운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법계품서식은 품서자 스님들께서 종단이 추구하는 수행력과 지도자의 역량을 갖춘 수행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이제는 선대의 덕화를 깊이 이해하여 그간의 성취를 보여줘야 하는 지위에 들어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품수하는 법계가 수행력과 지도력을 보여주는 관문과도 같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종덕, 현덕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접하고 마음속에 느꼈던 환희와 감동, 그 열렬하고 생생한 초심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개인의 성취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학을 바르게 안내하고 참된 진리를 사회에 전해야 하는 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불교를 향한 사회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종단적

으로도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야하는 것은 물론, 참신한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선두에서 법계의 위상에 따라 종단과 종도의 마음을 읽어가며, 사회와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혜를 다지고 자비를 실천하며 한국불교를 변화시킬 수행정진을 이루고, 전법교화의 중심이 되어 불교중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종단은 여러분의 수행과 교화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종덕·현덕 법계품수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초심과 공심으로 이룬 오늘의 원력이 사회 곳곳에서 실현되어 사회가 우리의 삶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계위원장이신 고산 대종사의 청안한 덕화와 더불어 품서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신 법계위원 스님과 고시위원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2560년 4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